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현황 및 제언

2026.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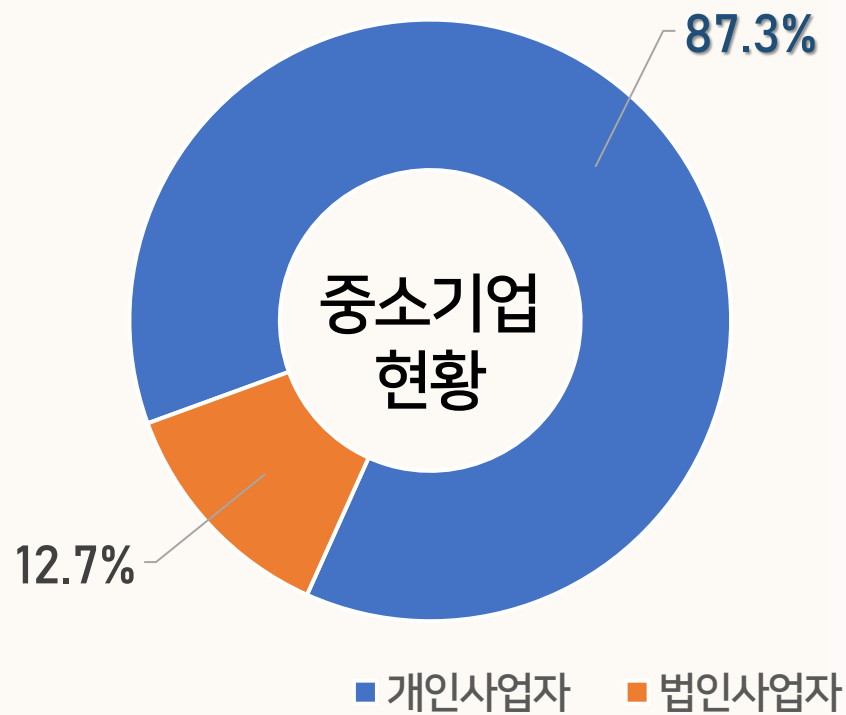


한국신용정보원
Korea Credit Information Services

한국신용정보원
Korea Credit Information Services

1 개인사업자 금융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소비자(개인) 금융이 혼재된 영역
 ➔ 금융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 등이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Thin-filer)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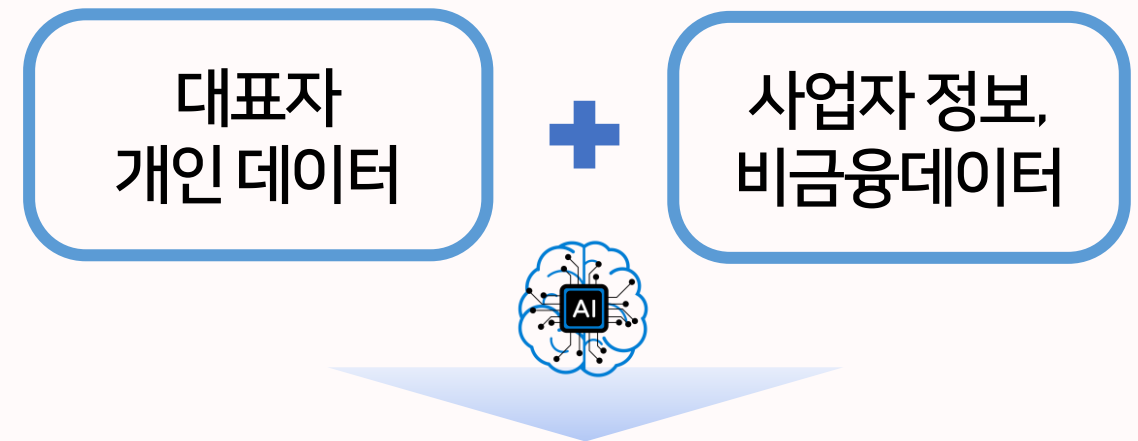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5.8)

‘담보·개인’ 특성 중심의 전통적 신용평가체계

- 높은 금융정보 의존도
- 리스크 관점의 평가
- 사업성 반영 부족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활성화 >



기업의 긍정적 측면의 “사업성” 평가
 ➔ 혁신 사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2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현황

개인사업자CB 라이선스 보유 기관이 독자 신용평가 모형을 운영

☞ 부실 예측 성능 개선을 목표로 하는 모형 설계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기관 (11社, 신·기보 제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나이스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KoDATA)	한국평가정보(KCS)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서울평가정보(SCI)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비씨카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활용정보 구성(예시)

대표자
(개인)

- 상환이력(신용도판단정보 등)
- 신용공여(대출)
- 신용개설 및 보증
- 카드 사용, 부동산 보유

사업자

- 상환이력(신용도판단정보 등)
- 신용공여(대출)
- 카드 가맹점 매출
- 부가세, 재무제표

기타
비금융

- 사업자 정보(업력, 업종 등)
- 상권정보
- 플랫폼 활동정보

데이터 부족, DB 산재, 리스크 신용평가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금융접근성 저하

표준화 데이터 부족



재무제표 낮은 신뢰도
사업·개인 소득 혼재

현금흐름 파악의 어려움

DB 인프라 산재



금융사, 공공기관, 플랫폼社 산재
데이터 보유 기관별 업종 편중

신용평가 고도화 한계

리스크 신용평가모형



대표자 개인신용 의존도
긍정정보의 부실 예측 목적 활용

사업성과 반영 미흡

4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제언

사업자 비금융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하여 리스크, 미래사업성 평가 → 입체적 신용평가

